

- 하늘에서 이루어진 용과 아이의 2차 전쟁

요한계시록 12:7-8

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

- 용의 핵심 정체성 - 패배하여 내어쫓긴 존재

요한계시록 12:9-10

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

- 하늘에서도 패배한 용의 전쟁 (용과 여자)

요한계시록 12:13

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

- 교회를 억압하는 용

요한계시록 12:6

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

- 여자가 내몰린 장소가 어디입니까?

요한계시록 12:13-14

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

- 광야까지 쫓아 온 뱀(용)

요한계시록 12:15

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

요한계시록 12:16

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

- 교회에게도 패배한 용의 마지막 싸움 (용과 아이들)

요한계시록 12:17

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

- 여자가 낳은 자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13장부터

요한계시록 강해

- 15강 -

Revelation

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,
which God gave him to show to his servants the things
that must soon take place. [ESV]

요한계시록 12:1-6

1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2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3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4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6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

1. 요한계시록 12-15장의 내용은?

1) 일곱 나팔이 불리기 전 42달, 1260일, 한 때 두 때 반 때

요한계시록 11:2-3

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

2) 11장까지는 일곱나팔이 다 불렸는데, 12-1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?

요한계시록 12:6

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천이백육십 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

요한계시록 12:14

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

요한계시록 13:5

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

• 11장에 짧게 기록된 내용을, 12-15장에서는 더욱 확장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.

2. 12-15장을 이끌어가는 4가지 인물 (여자, 아이(들), 용, 짐승들)의 이해

1) 여자

요한계시록 12:1-2

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

• 이 여자는 누구일까?

①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?

② 구약의 언약공동체 (구약교회)?

2) 아이

요한계시록 12:5

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

• 이 아이는 누구일까?

시편 2:9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

3) 용

요한계시록 12:3-4

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

• 용은 무엇인가?

요한계시록 12:9

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

• 용은 계시록에만?

시편 74:13

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

이사야 27:1

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

• 머리 일곱에 뿔이 열개, 왕관

① 여자가 쓴 관 [스테파노스]

② 뱀이 쓴 관 [디에데미]

• 땅에서 이루어진 용과 아이의 1차 전쟁

요한계시록 12:5

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